

평화도로 구축 첫 발...“미개량구간 포함 최선”

진교원 | 승인 2021.09.08 | 14면

기획취재 인재 국도 31호선 대체노선 선형개량사업 효과과제
연장 11.42km 2차선 개량 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남북 관광활성화 촉매역할 기대
도로건설 예산·당위성 확보 관건

인제지역 최대 현안인 국도 31호선 대체노선 선형개량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균형발전 기대감과 함께 동서고속화철도 원통역까지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 사업의 효과와 과제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업추진

국도 31호선 대체노선 선형개량사업이 4순위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이 사업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IC~기린면 인제스피디움간 총연장 11.42km를 2차선 개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615억원이 투자된다.

군은 지난 2018년 총 7000억원대의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IC~기린면~동서(춘천~속초)고속화철도(KTX)원통역을 잇는 23.0km의 4차선 도로 신설 계획서를 냈다.그러나,막대한 공사비 등으로 벽에 막히면서 지난해 6월 총사업비 1979억원 규모의 인제IC~인

제스피디움 10.4km 구간 2차로 노선 개량 직선화 계획으로 변경·제출했다.

◇지역효과

내설악~금강산 남북관광특구 조성의 기반이 될 평화도로 구축사업을 위한 시발점으로 첫 관문 통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한 수도권 또는 중부 내륙 지방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최단거리 교통망 구축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과의 교통망 연결과 동서축·남북축 교통망 연계성 향상 기대를 비롯해△교통통행불편 해소△군작전도로 확보△지역 주민의 생활·정주여건 향상△교통망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특히,국책사업의 시너지효과 창출로서 남북 연계 생태관광 활성화와 DMZ 국제평화지대화,DMZ 평화의 길 등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과제

국도 31호선 인제스피디움에서 원통역 구간 11.58km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서 가능되게 됐다.앞으로 지역내에서는 도로 건설 당위성 등에 힘을 집중·결집해 나머지 미개량 도로구간이 차기에서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건설비용 증가 등에 따른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설계 등부터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여기에 도와 군에서 국도 31호선과 연결되는 지방도 453호선 확·포장 공사를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가운데 최소한 도로 완공 시기에 맞춰 해당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진교원 kwchine@kado.net



진교원 kwchine@kado.net
